탈레반 '맞교환' 요구 철회 설득이 관건

■ 남은 인질 석방협상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에 여전히 억류돼 있는 인질 19명의 석방을 위한 한국 대표단과 탈레반 무장세력 간의 대면 접촉이 이르면 14일 중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협상의 조속한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협상은 이제부터**=한국 대표단과 탈레반과의 대면 접촉이 지난 10일 첫 성사된 이후 양측은 나흘간 직·간접적 접촉을 유지하며 탐색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탈레반은 여성 인질 2명을 '아무런 조건없이' 풀어주는 유화 제스처를 취해 향후 협상 전망을 밝게 한 동시에 나머지 인질들의 석방 조건에 대한 부담감도 안겨줬다.

납치됐던 김경자, 김지나씨가 석방된 13일 한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남은 19명 모두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며 곧바로 사실상의 '본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양측의 대면 접촉은 일단 10일과 11일 잇따라 열린 것으로 확인됐지만 12일과 13일에도 속개됐는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남은 인질 19명의 석방 조건을 조율하기 위해 개최될 본협상은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수일 내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레반 요구 충족 가능성 있나**=향후 본협상에서 탈레반측이 '맞교환' 요구를 호락호락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측이 탈레반 측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든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수감자 석방의 열쇠를 쥔 아프간 정부에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첫 대면협상 후 탈레반 대표단의 입에서 나온 언급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탈레반 대표는 당시 "아프간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협상에서 인질-수감자 맞교환을 제시했고 수감자 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했었다.

이런 추측이 맞다면 우리 정부는 6년째 내전상태로 황폐화된 아프간에 병원 등 의료시설을 지어주거나 재건사업을 돕겠다는 제안을 조건으로 아프간 정부에 탈레반 포로의 석방을 설득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연합뉴스

평화를 염원하는 춤사위 레바논에 파견된 유엔평화유지군 소속 한국군이 13일 레바논 남부 티르 디바 기지에서 전통 공연을 펼치는 것을 이탈리아 군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석방 인질 인계 자히르씨 전화 인터뷰

"이젠 자유다" 위로에 인질들 울음 그쳐

"탈레반으로부터 이제 자유롭다고 위로하니 그제야 울음을 그치더군요."

13일 피랍 26일만에 석방된 김경자, 김지나 씨를 쳐음 탈레반으로부터 인계한 하지 자히르(32) 씨는 이날 밤(이하 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통역을 통한 단독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자히르씨는 또 이날 인질 석방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조건없는 석방이었으며 대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질 2명이 석방된 것은 아주 큰 성과"라며 기뻐하고 이들을 태우고 오는 동안의 이야기를 연합뉴스에 풀어놨다.

자히르 씨는 가즈니주 다이크 지역 콘다르 마을의 부족 원로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탈레반 세력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나 탈레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전형적인 아프가니스탄의 마을 원로집안 출신이라고 했다.

그는 탈레반에게 인질 2명을 넘겨받고 1시간30분 정도 그의 회색 코롤라 승용차를 몰아 아르조까지 중계 역할을 했다. 적신월사 차에 이들이 옮겨 탄 것이 13일 오후 4시께였으므로 자히르씨는 오후 2시 30분께 탈레반의 손에서 여성인질 2명을 인계한 셈이다.

그는 "한국인 여성 2명은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뒤 5분 정도 계속 흐느꼈고, 차를 타고 나서도 1분 정도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며 "앞자리에 탄 내가 영어로 뒷좌석의 그들에게 '이제 탈레반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더는 탈레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위로하니 그제서야 울음을 그쳤다"고 말했다.

울음을 간신히 그친 그들을 운전석 거울로 보니 가끔 서로 웃음을 지으며 무언가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다 순간적으로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 등 감정의 굴곡을 보였다고 그는 전했다.

/연합뉴스

아베 戰犯 무죄론 동조 논란

동경재판 무죄주장 印판사 후손 면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2일 인도를 방문하는 길에 도쿄재판(연합국이 전범을 심판한 극동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 전원의 무죄를 주장했던 인도인 펄 판사의 유족을 면담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런 계획은 2차대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돼 주목된다.

도쿄재판에서는 25명의 일본인이 A급 전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7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펄 판사는 당시 승전국이 패전국 지도자들을 처벌하는 재판 방식에 비판을 제기하며 피고인 전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도쿄 야스쿠니(靖國)신사에는 펄 판사의 공적비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와 유족과의 면담은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면담은 아베 총리가 강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는 도쿄 전범재판에 전범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도쿄재판에 대해 "재판을 수락하며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A급 전범에 대해서는 "전쟁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미 A급 전범 및 도쿄재판에 대해 의문을 표한 바 있어 이번 면담이 파문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후식기자 who@·연합뉴스

김경자·김지나씨 건강상태 양호

동의부대 간호장교 숙소서 휴식…한식으로 식사

"귀국 후 '특별 보호' 받을 것"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된 지 26일 만인 지난 13일 풀려난 김경자(37), 김지나(32)씨의 건강상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동의부대로부터 두 사람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현재 여성들은 바그람기지 내 동의부대의 간호장교 숙소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부대 의료진들은 여성들의 건강상태를 정밀 진단하기 위해 현재 혈액검사 등 일부 전문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즈니시 미군 지역재건팀(PRT)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미군이 제공한 헬기로 전날 바그람기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동의부대에서 제공한 한식으로 식사를 했으며 음식을 절반 정도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카불과 두바이를 거쳐 1~2일 안에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김씨는 귀국한 뒤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관계당국의 '특별보호'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후식기자 who@·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값비싼 학습, 전남무역

홍행기
사회2부 차장

전남도가 대주주로 참가해 지난 1996년 3월 설립한 (주)전남무역이 11년여 만에 청산 절차를 밟고있다. 돼지고기 중계무역을 하다 일본 수입업체의 부도로 거액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청산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의 한계와 예정된 말로를 보는 듯해 안타깝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지난 13일 도청에서 전남무역 경영진단 최종 보고회를 갖고 "전남무역은 유통구조 측면에서 농수산물 수출로는 영업가치가 없다"며 "청산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전남무역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수입해 일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벌여왔으며, 올해 초 일본 현지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 150억여 원을 떼여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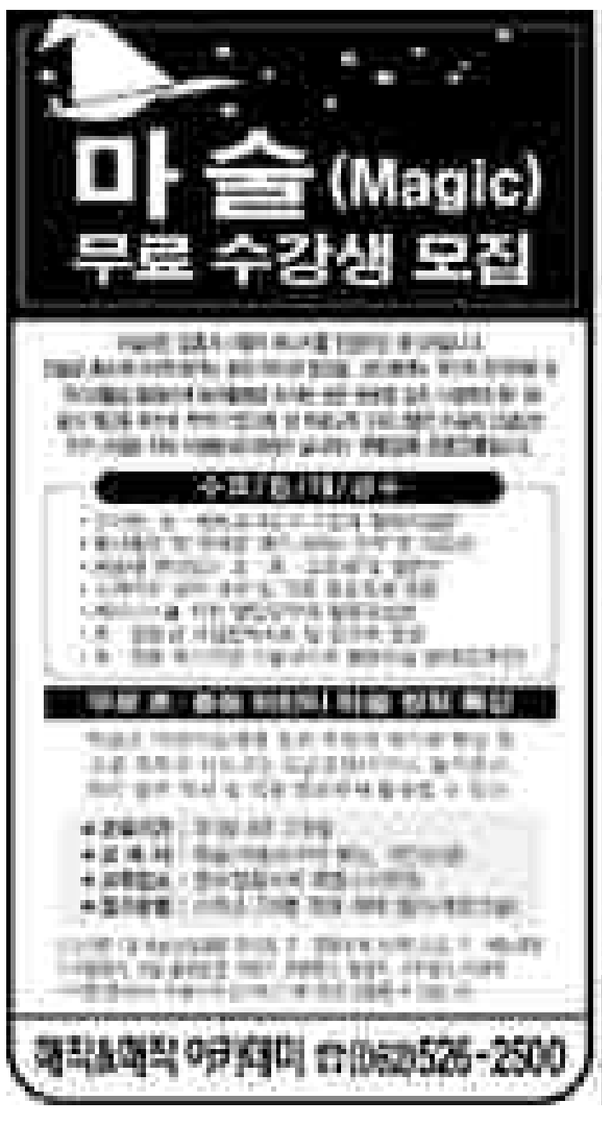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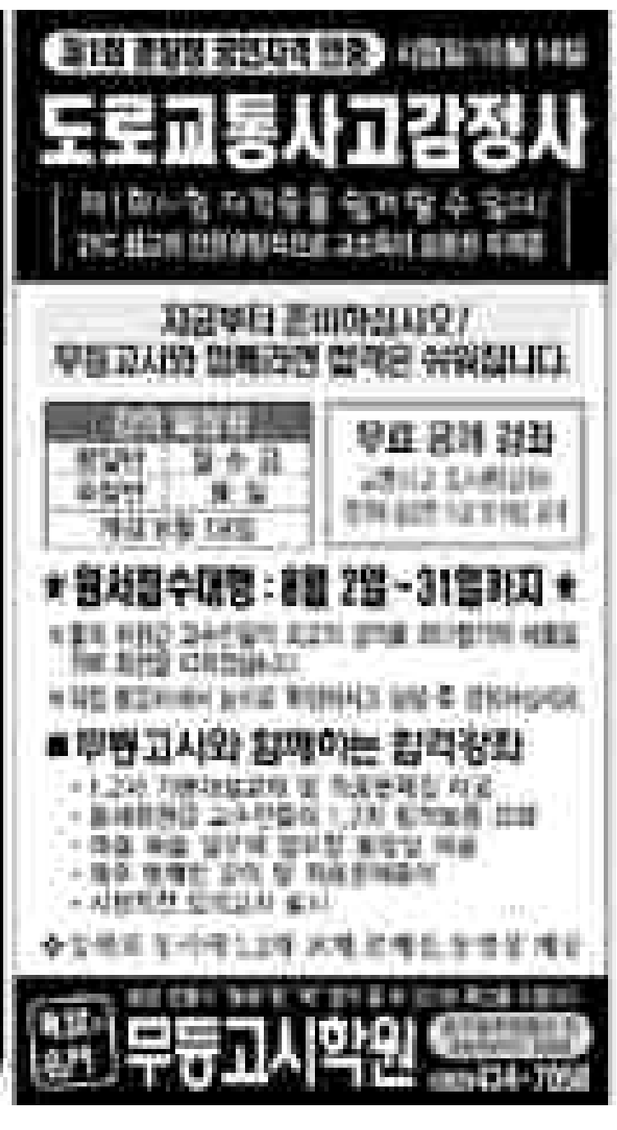
한국자치경영연구원은 지난 4월 말 기준, 전남무역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청산가치가 -131억 원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농수산물 수출만으로는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거둘 수 없다는 점 등을 청산이 불가피한 근거로 제시했다.

전남무역이 전남지역 농수산물의 국외 판로 확보와 수출증대, 수출 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농수산물 수출로는 영업가치가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실제로 전남무역은 농수산물 수출 대행수수료를 민간 무역업체보다 적게 받고, 또 수입업자로부터 클레임(항의)이 들어올 경우 농민이 책임져야 할 부담을 나눠 지는 등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공익적인 영업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최고의 가치로 꼽는 '수익'을 '공익'의 아랫자리로 밀쳐 둔 전남무역의 영업결과는 처참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11년여 동안 1억 2천만 달러어치의 농수산물을 수출해온 전남무역은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지난 4월 말 현재 무려 141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전남에는 전남무역 외에도 농수산물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 민간무역업체가 10여 개나 활동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공기업에 의존하느라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전북무역이 파산하고 경남무역과 경북통상 등 타지역 지자체가 설립한 농산물 수출 전문 무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수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남무역 청산사태 역시, 아무리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충분한 영업실적과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redplane@kwangju.co.kr